

美, 중국산 배터리 빚장… K-ESS, 북미 전력망 잡는다

美·EU, 中 장비 안보 규제 강화
韓 배터리, 대체 공급사로 ‘주목’

LG엔솔, 생산능력 50GWh 확보
삼성SDI, LFP 배터리 양산 추진
SK온, 라인 전환하고 공급 계약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규제 강화로 LG 에너지솔루션·삼성SDI 등 한국 업체의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에너지저장 장치(ESS) 수요도 늘면서 국내 업체는 북미 생산능력과 원료·소재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과 차세대 배터리·장주기 ESS를 앞세우고 있어 한·중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중국 기업에 집중된 ESS 배터리 공급망을 에너지 안보 문제로 보고 중국산 장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전력망 장비 도입과 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고위험 국가의 핵심



LG에너지솔루션 ‘ESS 전력망 컨테이너 제품’.

부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한국산 배터리는 중국산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공급망 안보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한국 업체들이 대체 공급사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산 장비의 사용이 제한될수록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등 한국 업체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업체는 북미 ESS 시장에서 출하를

늘리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SNE리서치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합산 점유율은 19.7%로, 전년 동기보다 5.8%포인트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5개 ESS 생산 거점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생산능력을 50GWh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배터리 생산 확대와 함께 시스템 통합 법인 버테크를 통해 설계·운영·유지보수까지 지원하며 고객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

난탈에는 엔비디아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플랫폼 ‘DSX 레디’ 공급 파트너로 선정됐다.

생산 확대에 필요한 현지 원료 조달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스맥오버 리튬과 계약을 맺고 2029년부터 10년간 탄산 리튬 총 8만톤을 공급받기로 했다.

삼성SDI는 미국 인디애나주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스타플러스에너지(SPE)의 일부 생산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해 올해 10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에서 생산할 LFP 배터리 기반 일체형 ESS ‘SBB 2.0’의 안전성 검증도 마쳤다. 지난달 UL 솔루션즈의 대형 화재시험에서 인접 랙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고 외부 스프링클러 없이 자체 진화하며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SK온도 미국 조지아 공장의 일부 라인을 ESS용 LFP 배터리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네오볼타파워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9GWh의 배터리 셀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엘앤에프와 약 1600억원, 포스코퓨처엠과 1

조1000억원 규모의 LFP 양극재 공급계약을 맺으며 소재 확보도 병행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ESS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청정전력협회(ACP)와 우드맥кен지는 미국의 대규모 ESS 연간 신규 설치량이 향후 5년간 출력 용량 기준 연평균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업체들도 시장 지배력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CATL은 나트륨 기반 ESS 배터리의 상용 공급을 시작했고 중국의 풍력·에너지저장 기업 엔비전그룹은 최대 16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하는 장주기 저장 시스템을 선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미국과 유럽의 중국산 배터리 규제를 기회로 보고 있지만, 실제 규제 강도와 적용 범위는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산 소재를 당장 모두 대체하기는 어렵다. 국내 소재 사용을 확대하되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첫 국정감사 앞둔 이소영… 정책 실효성·中소 지원 검증대

〈중기부 장관〉

내일부터 30일까지 세 차례 진행
온누리상품권 개편안 효과 점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지원 논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의 첫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과 모태펀드의 운영 실효성,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따르면 중기부 국감은 오는 7일을 시작으로 15일 산하 공공기관 감사, 30일 종합감사까지 세 차례 진행된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이 장관을 상대로 중기부의 주요 정책과 업무 추진 현황을 살피고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도입됐지만 2024년 국감에서 대규모 부정 유통이 적발된 이후 사용자 관리와 정책 효과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가맹점에 결제가 몰리면서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란이다. 올해 8월까지 전체 결제액 3조 3369억원 가운데 73.7%인 2조 4592억원이 결제액 상위 10% 가맹점 2만 2581곳에서 사용됐다. 상반기 결제액이 가장 많았던 가맹점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구매처로 알려진 서울 A약국으로, 260억원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달 1일 사용처에 따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달리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개편안이 결제 편중을 완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늘리는 데 효과가 있을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모태펀드는 투자 성과와 수도권 편중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개별 투자조합인 자펀드에 출자하는 정책 펀드다. 중기부 자료를 보면 청산이 끝난 자펀드 352개가 투자한 기업 3541곳 가운데 1817곳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전체의 51.3%에 해당하며 168곳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2687곳으로 전체 투자기업의 75.9%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도 검증 대상이다.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상대 기업의 핵심 정보나 영업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는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80건 중 해결 사례는 시정권고 1건과 조정 성립 4건 등

5건에 그쳤다. 올해 초부터 피해기업을 통합 지원하는 ‘기술탈취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피해 구제 성과와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에 따른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와 지원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입점 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1400억원을 확보했다. 박성민·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감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자금 집행 현황과 피해 구제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우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사업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분리발주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우신 LH 민간사업협력처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기존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미래산업 참여 방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장관 취임 이후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묻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관희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신규가입 확대 친구 추천 이벤트 진행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신규 가입을 확대하고자 ‘친구 추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1월 30일까지 기존 가입자가 지인에게 노란우산을 추천하고 해당 지인이 신규 가입을 하면, 추천인과 신규 가입자 모두 디지털페이 5만원 쿠폰(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중 택1)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인 추천 횟수에 제한이 없다.

참여를 원하는 가입자는 노란우산 앱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 ‘친구 추천 이벤트’ 메뉴에서 자동 생성된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면 된다. 지인이 문자 메시지의 가입링크로 신규 가입을 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디지털페이 쿠폰은 다음 달 중으로 추천인과 신규 가입자 휴대전화로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이승혁 기자

트리니티항공 국제선 60개 노선 대상 10월 항공권 프로모션

트리니티항공이 가을부터 연말·연초까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국제선 항공권 할인에 나선다.

트리니티항공은 국제선 60개 노선을 대상으로 ‘10월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사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탑승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항공권을 예약할 때 할인코드 ‘OCT26’을 입력하면 노선과 탑승 기간에 따라 최대 22% 할인받을 수 있다. 일부 노선에서는 비즈니스석 할인도 적용한다. 20만원 이상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5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탑승객을 위한 제휴 혜택도 마련했다. 유럽 기차 요금을 최대 8%, 박버스 투어를 20% 할인하며 국립항공박물관 우대 요금도 제공한다.

/이승혁 기자

프리미엄 수입차, 전기차 vs 가솔린 엔진 ‘승부수’

포르쉐, ‘카이엔 일렉트릭’ 공식 출시
렉서스 ‘올 뉴 ES’ 전동화 수요 공략
지프, ‘뉴 그랜드 체로키 L’ 성능 강화

연말을 앞두고 프리미엄 수입차업체들이 잇따라 신차를 투입하며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포르쉐와 렉서스는 주력 모델의 순수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지프는 새로운 가솔린 엔진을 앞세우는 등 브랜드별 전략도 엇갈리고 있다.

5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포르쉐코리아는 지난달 30일 ‘카이엔 일렉트릭’을 국내 공식 출시했다. 이어 지난 2일 서울 마

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포르쉐 바이트 서울’에서는 신형 카이엔 터보 쿠페 일렉트릭’을 국내 최초 공개했다.

포르쉐의 첫 양산차 356부터 역대 911과 모터스포츠 차량 등 70여대가 모인 행사장에서 최신 전동화 모델인 카이엔 터보 쿠페 일렉트릭도 모습을 드러냈다. 국내에서 3만 4000대 이상 판매된 핵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카이엔에 내연기관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에 이어 순수전기 파워트레이ンを 추가한 것이다.

최상위 카이엔 터보 쿠페 일렉트릭은 런치컨트롤 작동 시 최대 1156마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

5초 만에 도달하며 최고속도는 시속 260km다. 113킬로와트시(kWh) 배터리와 800V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특정 조건에서 최대 400kW 충전을 지원하며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16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렉서스도 오는 13일 8세대 ‘올 뉴 ES’를 국내 출시하며 전동화 선택지를 넓힌다. 신형 ES는 기존 하이브리드(HEV)에 더해 모델 역사상 처음으로 배터리전기차(BEV)를 추가한다. 국내에서도 HEV와 BEV 모델을 함께 운영하며 전동화 수요를 공략할 예정이다.

반면 지프는 내연기관 성능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국내 출시한 ‘뉴 그랜